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6.(월) 총 6매(본문4, 참고2)
담당 부서	교통정책 조정과	담당 자	• 과장 안석환, 사무관 나민희, 주무관 윤현식 • ☎ (044) 201-3791, 3784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6.(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교통비 30%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·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16일에는 체험단 발대식도...울산·전주에서도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 도입 확산

□ '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'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'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, 세종시 시범사업(4. 30.)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(4. 16.)를 진행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·보행·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.

① 첫째,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*은 그대로 유지하면서, 월 44회의 정기권을 10%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.

* 수도권외의 경우,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

-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,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하여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.

< 광역알뜰교통카드 정기권 속성(음영) >

계층별	구역별	기간별	횟수별	수단별
가족권	1존(시내)	1일권	횟수권(44회 등)	일반권
학생권		1주일권		
일반권	2·3·4·5존 (거리비례제)	1개월권	무제한권(가족)	특수권(예정) (광역 철도/버스 등)
버스권(노인)				

- 올해 상반기 중 세종·울산·전주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,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.

< 알뜰광역교통카드 시범사업용 카드(예) >

세종 시범카드
① 단거리용(1150원X44회)
② 장기리용(1550원X44회)
③ 장/단거리 혼합(①,② 각22회)

울산/전주 시범카드
① 표준형(1250원X44회)
② 도시맞춤형(검토 중)

- ② 둘째,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(이용 실적 점수, 이하 '마일리지')를 지급(최대 20%) 함으로써, 10%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%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
-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, 이동평균속도로 보행·자전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교통유발부담금* 개선, 건강기금 활용**, 공공기관 참여 확대***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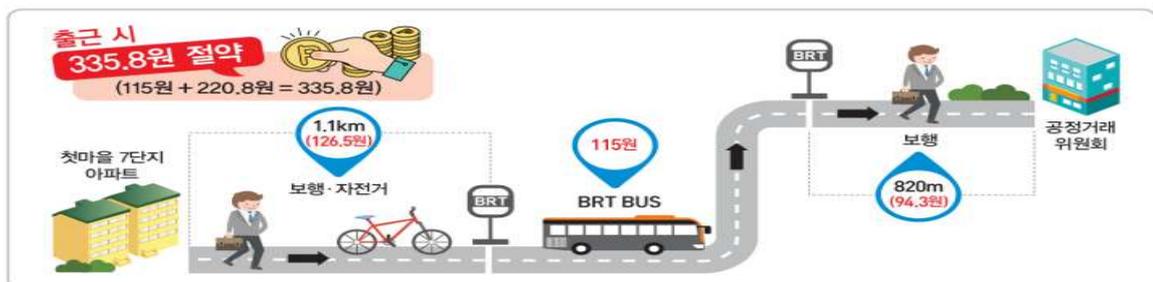
* 기업이 종사자에 마일리지 제공 시 부담금(1,000㎡이상 건물에 부과) 경감(붙임 2 참조)

** 미국, 일본 등은 건강기금을 조성·활용하여 걷기 등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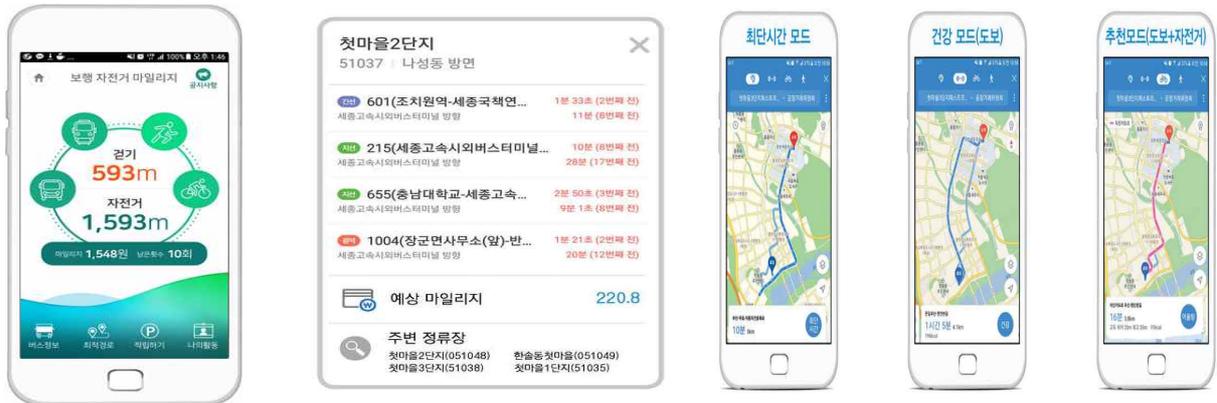
*** 지자체(지원조례 제정 지원), 국책연구단지(10% 추가지원 예정, 자체예산) 등

🔍 '나 알뜰' 씨의 활용사례

- 정기권 구매(1,150원×44회) : 10%할인(月 5,060원)
- 출퇴근(1일 2회)시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·자전거 이용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1km당 115원 적립 : 최대 20%할인(月 10,120원)



③ 셋째, 통합교통시스템(One Platform, All Mobility)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,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·환승시간, 보행·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.



<마일리지 관리 '18.上>

<버스 탑승/환승 정보 '18.下>

<최적 맞춤형 경로 정보 안내, '19.上>

④ 넷째,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·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(경제·환경·사회·보건적 편익)*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.

* 자가용에서 보행·자전거로 전환 시, 1km당 8,552원 편익 발생(한국교통연구원, '17)

‘나 알뜰’ 씨의 활용사례(편익)

○ 경제적 편익

- 자가용 이용대비 절감비용

나의활동
890,88원 절약
(464원/km × 1,92km)



○ 환경적 편익

- 승용차 대기오염 배출량 ↓
- 미세먼지, CO₂ ↓

나의활동
14,628,48원 절약
(7,619원/km × 1,92km)



○ 사회적 편익

- 혼잡비용 ↓
- 교통사고비용 ↓

나의활동
579,84원 절약
(302원/km × 1,92km)



○ 신체건강 편익

- 다이어트
- 체지방 감소
- 외래진료 본인 부담액 ↓

나의활동
320,64원 절약
(167원/km × 1,92km)

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(월) 세종정부청사에서 정기권과 보행·자전거 마일리지 앱 시연행사와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.

○ 국토부는 4월 3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종시민 체험단(500여 명)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·사용해 보고,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.

*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홈페이지(<http://handico.kr/koti-transitpass/>)에서 확인 가능

○ 김현미 장관은 체험단 발대식에서 “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, 대중교통·보행·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체험단에 참여하게 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“교통비 지출이 은근히 부담이었는데, 정기권으로 할인 받고, 마일리지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”면서,

- “돈도 아끼고 몸도 건강해 질 뿐 만 아니라, 도시 전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뿌듯하다”고 말했다.

□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”이며, “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나민희 사무관(☎ 044-201-379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(세종시) 정기권 및 마일리지 시범사업** ('18.4월~, Beta Test 방식¹⁾)

- (배경) 복합 요금체계(대전 등 환승), 젊은 인구특성(평균 36.8세, 고용율 63.3%), 보행/자전거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
- (대상) 세종 시민 500명을 대상('18.4~7, 3개월)
 - * 현재 세종-대전 통합환승시스템 통합 작업(~'18.7월)이 진행 중으로, 본 시범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**세종시내로 한정**(청주, 대전 추가환승 불가)
- (모집) 홍보 및 신청 4.9~20 / 선정 및 통보 4.23
- (홍보) 홈페이지(세종시청 등) · 카페 ·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및 기관(정부부처, 연구기관 등) 방문 홍보 · 협조 요청 병행
 - * 안내센터 : 전담인력 5명 상시 배치 예정(공단, 교통연구원, 스마트카드사)

※ 시범사업 시연 및 체험단 발대식 계획(안)

- 일시 : '18. 4. 16(월), 14:30~16:00
- 참석 : 장관님, 체험단, 세종시, 안전공단, 교통연, 기자단 등 200여명
- 내용 : 정기권 및 마일리지앱 사용방법 시연 및 체험단 발대식
 - ①집무실에서 출발 → ②도보 이동(약 5분, 마일리지 앱 활용) → ③대중교통(900번, 약 16분, 정기권 사용) → ④도보 이동(약 10분) → ⑤국책연구단지 체험단 발대식(인사말씀, 사업 소개, 사진 촬영 등)

□ **(전주·울산시) 정기권 시범발행** (롯데 이비카드, '18.6월~)

- (선정 배경) 단일 요금제 및 정산 체계, 시내버스 위주의 단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,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음
- (사업 내용)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회* 이용시 교통요금을 10% 할인(기존 5.5 → 5만원)해주는 정기권 발행 추진

* 현재 전주/울산시는 44회 발행과 실제 통행패턴에 맞는 맞춤형 횟수 검토중

1) 정식 도입 전 미리 정해진 고객들이 심도 있게 사용 후 문제점 등을 찾아내는 테스트

붙임 2**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감면 관련**

- (부과 목적)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,
 -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교통량 감축 유도 (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)

- (부과 대상)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
 - (면제대상) 국가·지자체 소유 시설물,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
 - (감면대상) 30일 이상 미사용,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*을 실시하는 경우,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경우

* 종사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활동도 포함

- (부과 기준) $\text{각층 바닥면적 합(㎡)} \times \text{단위부담금}^* \times \text{교통유발계수}$

* 단위부담금 : '14년부터 '20년까지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

**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조정 가능

[참고]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 실적

(단위 : 건, 백만원, %)

	부과		징수		차이		징수율 (b/a)
	건수	금액(a)	건수	금액(b)	건수	금액	
2015	222,245	228,387	206,644	221,071	15,601	7,316	96.8
2014	210,544	209,153	194,481	200,679	16,063	8,474	95.9